김지완의 '대망'… 지방은행 탈피 금융그룹 반열 꿈꾼다

BNK, 부산 연고 롯데카드-손보 인수 "절호찬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중"

BNK금융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BNK금융이 보험사와 카드사를 인수할 경우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BNK금융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이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인수를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M&A에 대해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인수와 관련해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현재 BNK금융은 이익 대부분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창출되고 있어 비은행 부문의 강화가 필요하다. BNK금융은 비은행 계열사로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를 두고 있지만 보험사와 카드사는 계열사로 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도 은행중심, 이자수익 위주의 성장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비은행 계열사의 외형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BNK금융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BNK금융은 올해 초 시장에 매물로 나온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검토했지만 시기를 놓치면서 실제 인수전에는 뛰어들지 못했다. 다만 BNK금융은 지난해 말 300억원 증자 이후 최근 추가증자를 지원하면서 700억원대 자산을 가진 자산운용사로 성장시켰다.

따라서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드사나 손보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는 금융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롯데손보 역시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BNK금융은 롯데그룹과 부산 및 경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어 합병시 부작용이나 거부감이 가장 적다는 메리트도 있다. 게다가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의 지분 11.14%를 가진 2대 주주다.

금융권관계자는 "롯데가 올해 지주사로 전환해 지분 일부를 내년 10월까지 처분해야 한다"면서도 "BNK금융과 롯데그룹 모두 연결고리가 약화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아,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BNK부산은행 본점

여신·카드 업무에 '로봇프로세스' 도입

NH농협은행 국내 금융사 최대 규모

NH농협은행은 가계여신, 기업여신, 카드 등의 주요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운영로봇수는 40대로 로봇수와 일일 처리량에 있어서 국내 금융사 중 최대 규모며, 서울 서대문 본부 내에 디지털 워크포스(workforce) 운영을 총괄하는 'RPA 컨트롤룸'도 구축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RPA는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가 자동화해 고부가 가치의 업무에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는 ▲개인여신 자동기한연기 ▲카드가맹점 계좌 검증 ▲비대면 카드심사 ▲기업체 휴폐업 정보 조회 등의 7개 프로세스에 적용했다. 단순 반복적인 후선업무 중심이 아닌 인터넷뱅킹과 고객센터, 모집인, 제휴기관 등의 다양한 채널과 연결해 실시간 심사 및 계정처리가 가능한 RPA를 구축하며, 금융권 RPA의 도입범위를 한단계 확장시켰다.

도입을 총괄한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RPA의 철학은 휴먼워크포스와 디지털워크포스가 공존하며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며 "사람이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꼼꼼하게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업무 완결까지 로봇이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고객에게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즉시 사람에게 보고한다"며 "로봇은 오류나 리스크를 줄이고, 사람은 고객 서비스 수준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NH농협은행 주재승 부행장(가운데)이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컨트롤룸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디지털뱅킹의 활성화로 비대면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대면 상품의 후선업무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협은행은 향후 챗봇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RPA에 접목하는 등 RPA의 영역을 고객 접점부터 사후관리까지 넓혀가 은행권 RPA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내년 3월 퇴임선언' 김한 후임 연내 선임

JB금융 인사폭 커질 듯

그룹 안정화 위해 차기 선임 속도
유력 후보에 임용택·송종욱 거론

김한 JB금융그룹 회장이 내년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연내에 차기 회장 내정이 예상되고 있다. 차기 회장 선임이 늦어지면 조직 전반이 느슨해질 수 있어서다.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에 취임, 2013년부터 JB금융그룹을 이끌어온 김 회장은 캐피탈,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을 보강하면서 그룹의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특히 김 회장이 주도한 수도권 영업 확대, 디지털 금융, 글로벌 진출부문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JB금융그룹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JB금융그룹 3분기 누적(1~9월) 순이익(지배지분 기준)은 211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5%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JB금융, 연내 신임회장후보 확정

지주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면서 JB금융은 후계자 찾기에 급박한 모양새다. 특히 지난 6년새 JB금융그룹이 5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면서 안팎으론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선출을 본격 착수했다. JB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이사회는 경영 승계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통상 금융권은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 40일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3연임이 유력했던 김 회장이 갑작스레 용퇴를 선언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JB금융그룹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임회장 선출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JB금융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회장 후보추천 선임 절차 및 자격요건, 후보자 현황, 후보자 검증 내역 등을 논의해 차기 회장 후보군 리스트를 꾸린 후 연내 신임회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JB금융 관계자는 "회장의 거취가 빠르게 표명된 만큼 진행속도는 더욱 빠를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부터 내년3월안에 임기만료가 되는 임원이 많은 만큼 그룹안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신임 회장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 광주은행장 연임에도 눈길

현재 JB금융 이사회는 올해 2월 말 기준 내부출신 3명과 외부출신 4명으로 이뤄진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다.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는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용택 전북은행장이 꼽힌다.

지난해 9월 선임된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주회장과 행장 분리 이후 광주은행을 이끈 첫 행장이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에 입행에 행장까지 올라간 최초의 사례로, 입행한 지 27년 만에 최고의 수장자리에 올랐다.

지난 2014년 11월에 선임된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메리츠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페가수스 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를 거쳐 2011년 JB우리캐피탈 사장으로 취임하며 JB금융에 발을 디딘 후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전북은행 내부 분위기는 다양하다 임 행장이 김 회장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진취적인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임 행장 입장에선 회장직 혹은 행장 3연임에 도전할 지, 아니면 전북은행 출신 행장을 바라는 일각의 요구에 따라 김 회장과 동반 사퇴할 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B금융 관계자는 "2019년 창립 50주년이 되는 전북은행에도 자행 출신 행장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銀, '韓 최우수 자산관리 은행' 선정

아시안뱅커誌 선정

신한은행은 글로벌 금융전문 매체인 아시안뱅커(The Asian Banker)가 주관한 '어 코리아 컨트리 어워드(The Korea Country Award) 2018'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자산관리(WM)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안뱅커지는 매년 금융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WM사업 부문에서 사업전략, 시장점유율, 자산성장 등 여러 부문을 종합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WM'을 수상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올해 신설된 '올해의 투자상품' 및 '최우수 WM서비스 품질' 부문도 수상했다.

특히 올해의 투자상품으로 선정된 신한BNPP의 커버드콜 펀드는 주식 등을 매수해 코스피지수와 유사한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안정적인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펀드로 변동성이 큰 시장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은행과 증권사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금융복합점포 모델을 도입하며 국내 WM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산관리분야에 있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은행권, 3분기 BIS 자본비율 15.55%… 호실적에 0.04%p ⬆

국내 은행들의 지난 3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55%로 개선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55%, 13.42%, 12.84%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대비 총자본비율은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적개선과 조건부자본증권의 신규 발행 등으로 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 웃돌았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17.72%), 경남은행(16.58%)의 총자본비율이 높았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11.32%)와 수출입은행(13.7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월 말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48%, 13.17%, 12.52% 수준이다. 6월 말 대비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01%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보통주자본비율은 0.04%포인트 하락했다.

지주별로는 신한(15.30%), KB(14.93%)의 총자본비율이 높은 편이며, JB(12.92%), 한국투자(13.02%)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자본비율이 양호한 영업실적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다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내부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